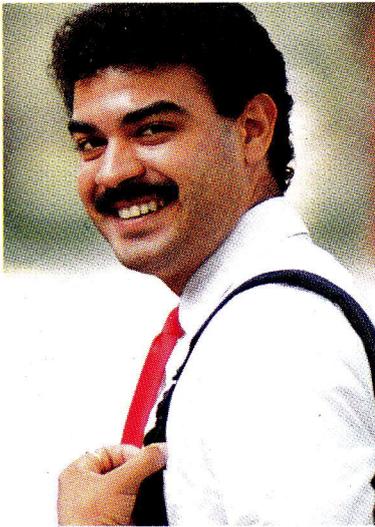


1991
3
성도의 벗
말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3¹⁹⁹¹



-표지 설명-

브룩클린 제2와드 장로 정원희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길베르토 도르타의 표정을 통해 브룩클린(뉴욕) 성도들의 행복한 표정을 읽을 수 있다. “브룩클린을 통해 본 세상,” 36쪽 참조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
최후의 만찬에서 성취된 유월절 언약들 테리 더블류 트레세더	12
“나와 같은 어린이” 알 발 존슨	25
재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이 갈트	30
발터 스파트와 첫번째 남미 스테이크 네오자 롱고	32
브룩클린을 통해 본 세상 클렌 벨슨	36
새소리와 제비꽃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42

청 소 년 란

친구들 즐라 화이팅	8
용서받았으나 잊혀지지 않는 죄 히더 오브리언	20
내 친구 패트리샤 알 로퍼	46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함	24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지혜의 말씀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8

어 린 이 란

물문경 이야기 : 아랫 백성들의 멸망	50
노래 : 나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제니스 캐 패리	53
제이미의 간증 패트리샤 와너크	54
심심풀이 : 그림으로 답하기 줄리 와델	57
함께 나누는 시간 :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로럴 롤핑	58
탐험 : 경이로운 우리의 신체 조이스 레슬리	60
단편소설 : 영원히 다시 삶 샌드라 벨슨	62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주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틴,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그로버그,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00권, 제28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1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3 320

Printed in Korea 3/91

훌륭한 느낌

저는 여러분과 함께 1990년 5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으면서 받은 훌륭한 느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칠레에 사는 예피 가족에 대한 기사인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저는 그 가족에 대해 큰 사랑을 느끼며, 그들이 주님의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타인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신앙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준 기사들 중에는 유타에 사는 데이비스 가족이 헝가리에 사는 케레스티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 그들의 열의에 대한 기사와("시작이반") 포르투갈에 사는 모레이라 형제들("형제애")에 관한 기사가 기억에 생생하며 모든 기사들이 참으로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5월호에는 선교 사업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저의 남편이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5월호 리아호나를 읽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리아호나를 늘 선교 사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들은 리아호나를 받아서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읽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16년 동안 리아호나를 빼놓지 않고 모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다음 호를 기대합니다.

에스텔라 데 호프만
 니과나과 와드
 베네주엘라 발렌시아 스테이크

목표를 세움

저는 방금 저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이 편지를 씁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읽다보니 마지막 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할 일이 없었으므로 마저 읽어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리아호나를 다 읽고 나자 저도 모르게 이 편지를 써서 편집자 여러분에게 리아호나를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힘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어머니와 형과 저만 교회 회원이며, 저는 1989년 1월에 침례받았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메시지와 교회 잡지에 실린 그 밖의 기사를 읽음으로써 간증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열 일곱살이 되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친척이나 선교사 친구에게조차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리아호나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카스틸라 올티즈
 콜로니아 사라고사 카를로스 에이 시 베라쿠르주, 멕시코

장벽을 허물어 줌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하는 훌륭한 사업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모국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아호나(스페인어판)가 매달 우리집에 오는 것을 몹시 기다립니다.

리아호나는 우리의 간증이 자라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 줍니다. 리아호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서로의 장벽을 허물어주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전세계의 형제 자매와 결합시켜 줍니다.

메이라 리스베스 몬슨 모라
 버나비 와드
 캐나다 밴쿠버 스테이크



대관장단 메시지

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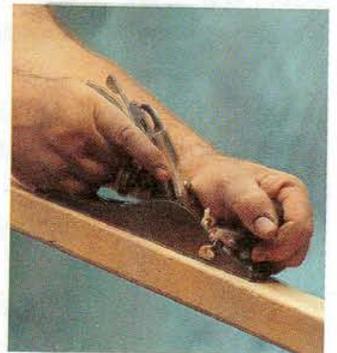
아기의 조그마한 손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사랑과 일과 봉사과 위로의 기적이 그 손에서 생겨납니다.

나 사렛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성역을 베푸실 때, 당시의 서기관과 학자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으며,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들에서 씨 뿌리는 자, 그물질하는 어부 등은 모두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 사용하시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진실로 볼 수 있는 눈과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무감각하지 않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참으로 경이로운 능력과 복잡한 부분들로 이루어졌으며,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의 육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가르치실 때에 발과 코와 얼굴과 옆구리와 등을 인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신체의 또 한 부분인 손에 관해서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화가와 조각가들이 화판에 그리거나 흙으로 빚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신체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손은 보기에에도 경이롭습니다.



나이나 피부색이나 크기, 모습 또한 이 기적과 같은 창조를 왜곡시키지 못합니다.

우선 어린 아이의 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팔에 안긴 갓난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그분의 능력에 경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작지만 완전한 아기의 손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가 우리의 새끼 손가락을 꼭 쥐면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고 눈에는 환한 빛이 나며, 시인에게 아름다운 시를 짓게 한 온화한 느낌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아기... 그 향긋한 인류의 새꽃,
하나님 왕국에서 싱그럽게 떨어진
땅 위의 꽃이어라.

아기는 자라면서 완전한 믿음의 표시로 굳게 쥐었던 두 손을 활짝 펴서 “엄마,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럼 전 두렵지 않아요.”라는 뜻을 전하며 어머니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이 항상 아름답게 부르는 다음 노래는 인내를 간구하는 것이며, 가르침을 부탁하는 것이며, 봉사할 기회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굳게 쥐 작은 두 손 가지고 있네.
비록 약하나 바른 일 알고 있네.
하루해 지나기까지 내 두 손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네.

진실한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모든걸 알기까지 축복하심을
하나님께 비오며 작은 이 손이
순종하는 법 가르쳐 주옵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4)

이러한 사랑과 신앙이 불러 일으키는 느낌으로 인하여 부모님들은 충실할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좀더 강조한다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1~3, 5~6)

두번째로 청소년의 손에 주의를 돌려 봅시다. 젊은 손은 바쁘게 움직여 일하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하여 일하는 훈련의 시기입니다. 성실한 노력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특징지워 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봉사 정신이 효과적으로 청년반 소녀들에게 전달되며 소녀들이 과자를 구워 근처 양로원에 사시는 연로하신 할머니들께 가져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할머니의 노쇠한 손으로 사려깊은 그 십대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구웠던 손이 있어서 눈물을 닦기위해 들어올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손이며 청결한 손입니다.

그 뒤 한 소년의 손이 그 소녀의 손을 잡을 날이 옵니다. 그때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였음을 불현듯 느끼게 됩니다. 성약을 표시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을 때 만큼 소녀의 손이 그렇게 우아해 보이는 적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소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표정은 점점 환해지며 온 세상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구혼의 시기가 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스러운 성전안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이 꼭 쥐어집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의 근심을 잊게 되며, 모든 생각이 영원한 가치로 향하게 됩니다. 그 꼭 쥐 손들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약속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부의 손은 *엄마의* 손이 되어서 언제나 매우 상냥하게 소중한 아기를 돌보게 됩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돌보아 주고, 세상에 엄마손과 같은 손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부드러운 보살핌은 싫증이 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어느 선교사 어머니의 손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전세계의 선교부장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선교사들의 부모님들 각 선교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악수를 나눴던 분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와이오밍주의 스타 밸리에서 오신 한 어머니의 굳은 살이 배긴 손을 쥐었을 때 느낀 감정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분은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병환중에 있어서 농장일을 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선교사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줄 모르고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영혼을 정화시켜 주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제게도 언제까지나 특별한 청년입니다. 한 어머니의 노동을 통해 아들이 성스러운 일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훌륭한 의사이건 매우 숙련된 공예가이건, 재능있는 교사이건 간에, 아버지의 손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도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일종의 존엄성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을 겪을 당시 저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행운아였습니다. 일자리는 많지 않고 노동 시간은 길었으며 보수는 적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연로하긴 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딸들만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한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스프링 캐년에서 석탄 광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는 낡은 트럭 한 대와 석탄 한 무더기와 삼 한개,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단지 그 자신 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까지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월례 금식 간증 모임에서 저는 그분이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한다고 간증하시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페럴

형제님께서 뉴욕 팔마이라 근처 숲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현을 본 한 소년에 관해 간증하실 때, 제가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를 꼭 쥐신 그분의 거칠고 벌겋고 부르튼 손의 손가락들이 하얗게 변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물론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아버지의 확고한 신앙과 확신과, 진리에 대한 그분의 간증을 떠올립니다.

여러 해 전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영감과 계시에 따라 디윗 제이 폴 형제님을 우리 교회의 미국 동부 스테이크 중 한 곳의 축복사로 부르셨는데 그 부름으로 인해 폴 형제님 내외분은 말할 수 없이 겸허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수로써 지지의 뜻을 표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수를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집회소의 지하실에 있는 한 교실에서 디윗 폴 형제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조용한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폴 자매님의 뒤에는 그녀가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얘기했던 친구가 앉아있었습니다. 이 신뢰감 깊은 친구분은 그 때에 일어난 매우 특별하고도 영감어린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 장로님이 앉아 있는 폴 형제님의 뒤에 서서어, 폴 형제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자 마치 아주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같은 매우 환한 빛이 리 장로님의 머리 위에 갑자기 비쳤습니다. 리 장로님께서 폴 형제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사로 성임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양이 맑고 환한 빛을 발했다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릅니다! 그 부름이 성스러운 부름임을 확인해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그 지하실 방에는 햇빛이 비칠만한 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가시고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의심을 물리친 것입니다. 예언자의 손은 참으로 존귀한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은 모세를 인도하였던 손이며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었던 손이며 또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던 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 : 10) 이 손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던 엄격하신 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손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사랑이 가득한 손이며,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소경의 눈을 밝혀준 강건한 손입니다. 이 손으로 인해 문둥병자가 깨끗해졌고 절름발이가 고쳐졌으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소생하였습니다. 곧 바람에 지워지겠으나 정직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기억될 메시지를 쓰신 것도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목수의 손이었으며 교사의 손이었으며 또한 구세주의 손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왕이라 칭하는 이 분에 대하여 자신의 죄없음을 보이려고 손을 씻었습니다. 아 얼마나 어리석고 용기없는 빌라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물이 그러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죄값 인해 못박혀 피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죄 지은 손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림을 그리는 손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손에 대해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움을 주는 손에는 감사를 표하며 봉사하는 손에 대해선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손을 추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해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붙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3 : 20)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숭고한 주님의 면전에 우리의 생명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각자 스스로 대답해보아야 합니다.

필멸이라는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운명의 수평선위에 드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이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 처럼 우리도 간구하고 싶어질 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문 앞에서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네, ‘미지의 세계로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주세요!’ 그가 대답하였네, ‘어둠으로 걸어나가 그대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것이 그대에겐 등불 보다 더 낫고 아는 길을 가는 것 보다도 더 안전하리라.’”(엠틀루이스 해스킨스, 옥스포드 인용문 사전, 제2권, 런던 :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53년 239쪽)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인생의 위험한 것들을 피할 수 있고 하늘의 집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정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중 한가지는 손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아기의 손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가 신뢰할 만한 것을 찾게 하며 인내로써 가르치게 된다.

—젊은이의 손은 일하고 봉사하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며, 결혼하여 다른 손과 결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의 평안한 손과 자애로운 보살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다.

—아버지의 손은 성실한 노동과 시험없는 노고에 대한 존엄함을 보여준다.

2. 문손 부대관장님은 또 다른 한 손이 있어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다.

3. 하나님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과 힘을 믿을 때에 가장 큰 평화와 축복이 따른다.



친구들

줄라 화이팅

고등학교 축구선수인 티와이와 일곱살된 우리 아들 웨슬런 사이의 우정은 점차 발전되었으며 그것은 그들 둘 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와!

엄마 저것 봤어요?” 경기중인 축구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일곱살된 아들 웨슬런이 소리쳤다. 웨슬런은 큰 소리로 “정말 저팀의 선수들을 만나고 싶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아리조나주 이글에 있는 라운드 벨리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곤 했다. 웨슬런뿐만 아니라 남편과 나도 그 학교의 학생인 우리 딸 미찌때문에 그 경기를 보러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축구 시즌이 계속되는 동안 경기의 영웅들은 민감한 웨슬런을 경탄시켰다.

나는 창피했지만 이 부끄럼쟁이 꼬마 송배자가 자신의 영웅들을 만나도록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다. 경기가 끝난 후 나는 웨슬런에게 “우리 가서 축구 선수들과 얘기해보자.”라고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경기장내의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한 영웅에게 가까이 가서 축하 인사를 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우리를 지나쳐서 그에게 다가가려고 우리앞을 가로막은 두명의 수다쟁이 소녀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선수는 내가 “훌륭한 경기였어요”라고 인사하고 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는지 말해주자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고는 멈추지도 않고 가버렸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오는 선수에게 다가가서 참으로 훌륭한 경기였다고 말해주자 티와이 위크맨이라고 하는 선수가 멈춰서 환하게 웃으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서 웨슬런이 축구 선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그의 검은 머리와 잘 생긴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웨슬런과 악수를 하면서 “고마워, 친구야. 이름이 뭐지?”라고 물었다.

아들은 기어 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웨슬런”이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운 듯 땅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나는 티와이에게 말했다. “웨슬런은 당신의 경기를 좋아해요.” 티와이는 웃으며 웨슬런에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 웨슬런, 너를 만나서 무척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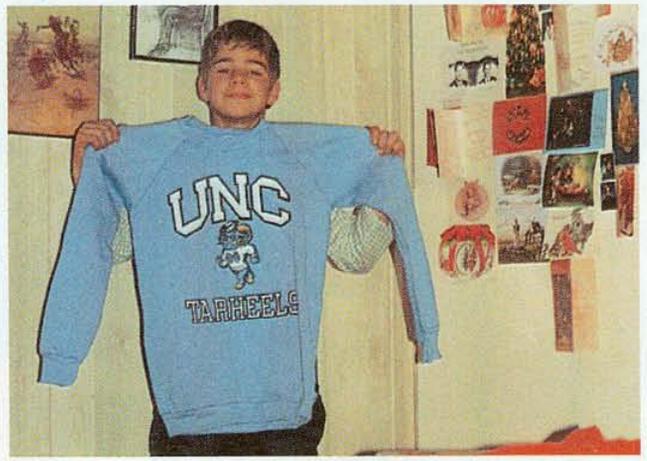
다음날 미찌는 학교에 가서 티와이에게 “우리 꼬마 동생은 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미찌는 티와이와 웨슬런 사이의 중계자가 되었다. 두소년들은 이내 진짜 친구가 되었으며, 축구 경기가 끝날 때마다 티와이는 웨슬런과 어깨동무를 하고 그 경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우리는 축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경기장에 갔으며,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서 경기가 열릴 때에도 경기를 보러 갔다.

티와이와 친해지면서 우리는 그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알았다. 티와이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며 훌륭한 도덕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웨슬런이 해로운 것을 피하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해”라는 말을



COWBOYS
54

NORTH
80



자주 들려 주었다.

그들의 우정이 짝튼지 몇 주후인 어느날 미찌가 학교에서 불길한 소식을 갖고왔다. 미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무 슬픈 일이에요. 티와이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대요. 일년 이상은 살 수 없을거래요.”라고 말했다.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설명을 하자 웨슬린은 고개를 떨구었으며,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후의 몇달 동안 티와이는 여러번 병원에 입원을 했다. 티와이는 몸이 무척 수척해졌지만 경기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티와이는 미찌와 함께 학교의 음악 및 무용반에 속해있었는데 퇴원해 있는 사이에 아주 어려운 연습에 참여했다.

어느날 저녁 늦게 티와이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티와이가 몹시 아픕니다. 웨슬린이 내일 병원으로 방문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티와이는 시력도 잃었고 하체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웨슬린은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왔을 때 푸른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티와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웨슬린이 저금했던 돈으로 선물을 사서 들고 병원으로 갔다. 티와이는 웨슬린에게 활기있게 인사했다, “안녕, 친구. 어떻게 지냈어? 난 너를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 네가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

“티와이, 우린 네게 주려고 선물을 좀 샀단다.”

나는 내 목소리가 근심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티와이는 초점없는 눈으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병원에서는 명랑하게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그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티와이는 며칠 뒤에 퇴원했다. 놀랍게도 그는 시력과 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이내 학교에 나왔다.

우리 가족은 그후 몇달 동안 티와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티와이는 우리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웃고 우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티와이는 웨슬린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슬로건인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해”를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직후 티와이는 치료를 받기위해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이 티와이가 다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린을 피닉스로 보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와서 티와이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고 전해 주었다.

티와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의 부모들은 그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문의에게로 데려갔다. 정밀 검사를 한 후에 그 의사는 티와이의 병이 다발성 경화증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통해 티와이는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탓으로 신경 기관에

선교 사업을 하면서도
티와이는 편지를 통해
웨슬런과의 우정을 계속
나누었으며 웨슬런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편지마다 그는
웨슬런의 선교 사업 기금을
위해서 한 두 개의 동전을
동봉했다.

침투한 바이러스때문에 아프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너무 기뻐했다.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어떻게 그 병을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기쁜 일은 티와이가 그 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티와이는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5월에 반 친구들과 함께 졸업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에 티와이는 일자리도 구했고 아리조나주 고등학교 올스타 축구 경기를 위해 연습도 했으며, 우리 지역에서 주 축구 선수로 선발된 네 명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웨슬런은 티와이가 연습하는 곳에 가기도 했으며, 우리 가족 모두 올스타 경기를 보러 아리조나의 프리스코트까지 긴 여행을 했다. 병으로 인해 티와이는 경기장에서 몸무게가 가장 적은 선수가 되었지만 팀은 그의 노력때문에 승리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경기장 밖으로 달려나와서 땀에 젖은 채로 환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꼬마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내가 사진을 찍는 동안 그 경기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 “여기 있어. 가져와야 할 것이 있거든.” 티와이가 웨슬런에게 말했다. 잠시 후 다시 달려 나오는 그의 손에는 경기에서 상으로 받은 올스타 모자가 쥐여있었다.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경기를 보러 와 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야”

티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생이었다. 그는 라운드 벨리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티와이

워크맨 상”을 받았다. 지금 그 상은 매해마다 역경을 극복한 학생에게 주어지고 있다.

1987년 12월 티와이는 북캐롤라이나의 샬롯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떠나는 말씀을 하는 도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는 제게 아주 특별한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웨슬런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감동을 주는 모임이었다.

티와이는 멍에롭게 선교 사업을 해냈다. 그리고 그의 꼬마 친구를 계속 기억해 주었으며, 웨슬런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자신이 어린 소년에게 얼마만한 기쁨을 안겨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웨슬런이 자신에게 안겨준 기쁨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중 다음 내용은 내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데 그것은 “웨슬런, 너는 내가 아는 이상으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어.”라는 것이었다. 그는 꼬마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한 두 개의 동전을 웨슬런의 선교사 기금으로 동봉했다.

티와이가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 나는 이 특별한 젊은이가 내게 젊은 세대의 신앙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 어린 아들에게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



최후의 만찬에서 성취된 유월절 언약들



테리 더블류 트레세더

주 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식사는 모든 인간의 영혼, 즉 산 자나 죽은 자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의 영혼까지도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불멸과 승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매우 위대한 사건의 시작으로 복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의 시기는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성찬이 새로운 상징으로써만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해 온 이후로 천년 이상, 유월절 의식 기간에 해마다 거듭 간구했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거행하였던 의식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성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만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에 대하여 새삼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방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출애굽기 12:17, 26~27)

주님은 이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시므로써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왕을 영접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계속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주님의 권세를 보여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의 장자를 모두 죽게 하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완전하고 흠 없는 양을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출애굽기 12:22~23)

애굽을 탈출하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은 양 고기와 무교병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급히 서둘러 쫓겨나오느라 누룩이 발효되지



이스라엘의 자녀들 처럼, 우리 또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면 그 대속하신 어린양의 피로 인하여 멸망의 천사를 무사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릴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 : 39 참조)

3천년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유월절 의식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의식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상징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서 의식의 순서와 상징적인 제물의 의미는 똑 같습니다. 단지 어린이들에게 출애굽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 말로 하는 부분들이 하가다 (유대교에서 유월절 전날 밤과 당일 밤 식사 때 사용하는 전례서)에 추가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추가로 두가지의 상징적인 음식이 세테르(유월절 식사) 점시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월절의 관습을 통해 최후의 만찬을 상상해볼 수 있으며 주님 자신이 그 거룩한 의식을 세우셨고 후에는 그것을 성찬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집

유월절 첫날에 주님은 제자 두 명을 보내 자신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내실 곳을 찾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 : 12~15 참조)

세테르(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보낸 두 제자는 다락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마도 그 방이 아주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살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월절 전야가 다가오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신앙있는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인 예의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러한 전통을 그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도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의식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를 쫓아내심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 : 5 참조) 또 주님은 성역을 마치실 때에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리는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후, 주님은 다시 성전에서 신성하지 못한 것들을 치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1 : 12) 그렇게 하실 때 마다, 주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된 성소로 부르시어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사랑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 및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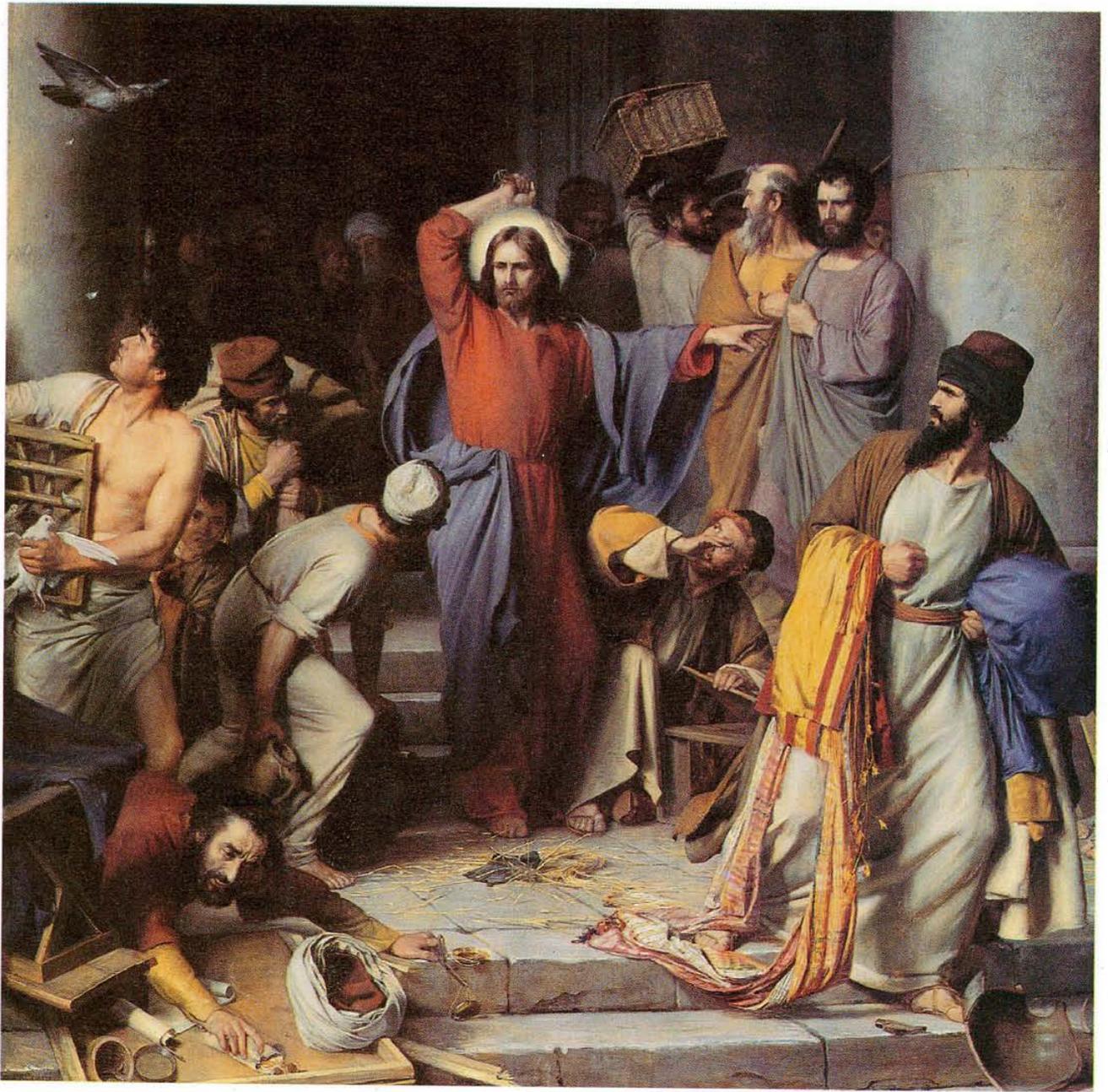
희생양

마가는 “무교절 첫 날에...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느니라”(마가복음 4 : 12)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첫 날 오후에는 가정의 연장자가 깨끗한 양을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사제가 그 양을 죽인 다음 유월절 식사를 위해 사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기가 세테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제는 그 동물을 성전안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유월절 주일 동안에 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운집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했는지는 그러한 필요 조건을 통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퍼스는 한번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수가 256,500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관습과 신앙에 따라 이 엄청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잡을 양을 바쳤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양들은 두 시간(대략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안에 잡아야 했습니다. 이들을 연속해서 양을 잡는 의식을 했기에 그 일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구세주께서 이 이틀 가운데 첫째 날 유월절 식사를 드셨다면(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음)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인 그 다음 날에, 주님은 유월절 양들이 성전에서 죽어가는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 됩니다.

구세주를 희생양에 비유하는 표현은 고대 및 현대의 경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니라”(이사야 53 : 7)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너희가) 구속된 것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자니라”(베드로 전서 1 : 18-20)

또한 물몬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주께로 돌아 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마지막 큰

날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흠없이 정결하며 아름다우며 깨끗한 자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물몬서 9 : 6)

단지 죄없고 흠없는 메시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수 있었으며, 엄격한 공의의 요구를 중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우리 또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면 그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멸망의 천사를 무사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포도주나 포도즙—는 고대 세테르 의식에서 두가지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잔은 자유 획득을 경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가다(유월절 기록)에 따르면 포도주나 포도즙을 다음과 같이 축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창조하신 만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지여 축복이 있으소서. 계명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신 만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지여, 축복이 있으소서. 오, 주 하나님이지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자유의 절기인 맏조트(무교절) 축제를 주셨사옵고, 저희에게 유산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과 환희의 성스러운 시간들을 주셨사옵니다.”

메시아는 이 첫번째 잔을 축복하실 때에 관례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대신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22 : 17~18)

구세주께서는 지상의 성역과 임무를 완수하시고, 죄에 속박된 형제 자매들을 대신하여 만물을 이기신 영광되고 부활한 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기쁨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교병

사람들은 유월절 준비의 과정으로 다락방에 있는 누룩을 치웠습니다. 누룩이 함유된 것은 집안 어디에도 들 수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는 다른 말로 멧차를 먹는 것은 유월절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종종 그 의식을 “무교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 : 17, 마태복음 26 : 17참조) 옛날처럼 오늘날에도 가족들은 세테르 전날 밤에 집안을 살살이 뒤져서 빵 조각이나 효모가 함유된 음료수 병을 찾습니다. 누룩이 든 음식물은 집에서 꺼내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 주 내내, 단지 멧차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 부분이 주님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칠일 동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찌니라”(출애굽기 12 : 19~20)

바울은 유월절의 누룩이 갖는 의미에 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린도전서 5 : 6~8)

주님께서서는 성찬을 주재하실 때, 유교병을 떼셨습니까? 아니면 무교병을 떼셨습니까? 그리이스어로 아주모스라는 단어는 무교제와



구세주를 희생양에 비유하는 표현은 고대 및 현대의 경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리라.”

관하여 말할 때 사용되며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마지막 성찬에서 사용한 빵을 일컫는 것입니다. 두가지 형태의 빵을 사용한 것은 구세주께서 관습적인 히브리 의식과 상징적인 새 의식에 관해 가르치신 형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일 멧차를 떼셨다면 주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멧차로 유월절 의식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만일 새로 만든 유교병을 떼셨다면 주님은 새 누룩으로 구속에 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세상에 가르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마태복음 13 : 33)”

떡이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을 대변하는 것 처럼, 그의 사도들은 구속에 관한 주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효모 발효제와 같이 행하였으며 복음의 새 누룩으로부터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옛날 세테르 지도자는 하나님께 사례하고 멧차를 축복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멧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이 충분히 부풀겨를도 없이 서둘러 애굽을 쫓겨 나와 얻었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하심으로써 그 상징적인 떡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 : 19)

아직도 그 떡은 사망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고 있지만 또한 그 자유를 얻은 방법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떡을 취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구세주를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구속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성역 기간 동안에 종종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 : 47~51 참조)

포도나무 열매(II)

세테르에서 모든 사람들이 멧차의 조각을 먹을 때, 지도자는 관례적으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포도 나무 열매를 축복하고 성약의 성취를 간구하는 동안 네 차례 휴식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를 번성케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여, 메시아가 오실 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명되시는 이가 오는 것을 보게 하소서. ‘메시아는 그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지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높은 데서 평화를 주시는 이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또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화를 주시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하가다)

다시 한번, 주님은 포도주나 포도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 : 20)

그날 밤에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즙은 이제 장차 이를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된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된 셈입니다.

쓴 나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출애굽기 12 : 8)

속박의 쓰라림을 상징하는 고추냉이나 양파같은

쓴 나물을 먹는 것도 유월절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종종, 마로(으깬 나물)를 하로셋(사과와 호도와 양념을 혼합한 것)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하로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회반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관습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잘 짜여진 방식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식사를 들 때에 몹시 “심령이 민망하셨다”는 것을 주목할만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누가복음 22 : 21)

주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의 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겨 주셨으며, 또한 가장 고귀한 사랑의 선물인 영생의 상징(빵과 포도즙)을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제자가 자신의 죄를 먹은 것을 아시는 주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또한 그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시고 심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금물

쓴 나물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소금물을 담을 접시가 있는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상치나 양파 같은 녹색 채소(카르파스)를 담습니다. 소금물은 노예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관습을 따랐다고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것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모반자가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과연 누가 그자인지 수근댔습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마태복음 26 : 22~23)

자유로 인한 기쁨과는 반대로 영적인 구속에 의해 겪게되는 고통과 눈물을 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세주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포도나무 열매와 생명을 주는 떡으로 비유되는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서만 오는 기쁨과 구속을 함께 나누게 되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쓴

나물과 소금물로 비유되는 비참함과 영적인 노예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식사 설교

예수님과 제자들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식사 의식에 따라 식사를 했을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제물로 드린 양고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유대인들은 구운 고기는 삼가했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고기(성전에서 준비되지 못한 고기)를 먹음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운 다리뼈도 유월절 양을 상징하기 위하여 세데르 접시에 올려졌습니다.

이 세데르의 시간에, 유월절 지도자는 전통적으로 자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합니다. (현대의 랍비들은 종종 랍비 교리상의 격언을 인용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유대인 대학살, 러시아의 유대인 박해, 이스라엘 국가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관해 토론합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이 끝난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3~17장 참조)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존경하는 손님에게 해드리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구세주께서는 봉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고한 미덕을 모범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12~15 참조)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후에, 주님은 그날 밤 내내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9, 12)

구세주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강조하셨고, 자신의 죽음에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셨으며, 다시 돌아오리라고 확인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성신의 임무에 관해 설명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요한복음 13:1)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찬 기도를 하는 중에는 구세주에 관해 생각함으로써 이와 똑 같은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을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를 찬미함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마가복음 14:26)

관례적으로 세데르 의식은 찬양과 자유에 관한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께서는 깃세마네 언덕으로 가시면서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대 축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까지 나오는 하렐(히브리어로 ‘찬양’의 뜻)을 불렀습니다. 또한 “대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136편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118편은 구세주께서 인류를 육신 및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는 메시야에 관한 찬송가입니다. 시편 116편은 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수 백편의 유월절 찬송가가 수 세기에 걸쳐 만들어지고 불려져 왔는데 어떤 것은 성경상에서, 또 어떤 것은 랍비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은 현대의 시편 작가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 유월절 동안에, 수 백만명의 유대 가족들은 그러한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경이로운 구원의 기쁨을
다함께 즐기세
속박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환희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모두 하나님 면전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세. *

테리 더블류 트레세더는 유타, 솔트레이크 하이랜드 스테이크 크리스탈 하이츠 제2와드에 살고 있다. 트레세더 자매는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중동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용서받았으나 잊혀지지 않는 죄

히더 오브리언

교회 활동을 그만둔 지 몇년이 흐른 어느날 아버지는 뜻밖에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저항감이 들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몰몬경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그저 막연한 것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의 생활은 모든 것이 교회의 규칙에 상반되는 것이었다. 나는 종교란 단지 자신을 부정하고 나와 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요구하는 광적인 조직으로 여겨왔다. 게다가 내가 만약 교회로 돌아간다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

마침내 아버지와 나는 내가 한동안 교회에 나가도록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도 내가 계속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그 때는 더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요일이 되었다. 나는 성찬식과 주일학교 시간동안 마치 커머거리처럼 앉아 있었다. 그 다음엔 청녀반이었다. 나는 교실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청녀 고문을 쏘아보며 앉아있었다. (후에 나는 내가 원했던 만큼 실제로 우리 고문을 질리게 했음을 알았다) 그 일요일 모임이 끝난 후 나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다음 일요일부터는 나가지 않으려고 감기부터 시작해서 편도선염까지 내가 앓았던 모든 병을 핑계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거부했으나 나는 교회에 다시 나갔던 첫번째 일요일에 무엇인가를 느꼈다. 반에 새로 들어온 낯선 소녀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던 고문으로부터도 무엇인가를 느꼈다. 또한, 나의 영적인 복지에 관심을 보여 주었던 반원들로

부터도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떤 잘못을 할때마다 그 고문은 내게는 그저 막연하기만 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쨌든 그 고문은 내가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 다음 나는 우리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그 큰 키에 비해 너무도 상냥하게 보였고, 큰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감독님은 나와 접견 시작을 하시면서 내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 같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었다. 감독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심정을 이해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감독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나를 꾸짖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나를 워드의 다른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느낌때문에 나는 계속 교회에 참석했다.

그 다음 두달 동안은 이전에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분에 젖어서 보냈다. 그리고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내가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참되다고 알려주는 주님의 영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간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주일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공과 교사의 재미있는 강의를 좋아한다는 것만 알았다. 청녀 고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그녀를 사랑했다. 감독님이 나를 비난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좋아했다.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때 느끼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은
판자에 못을 박는 것이며
회개란 그 못을 빼내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못자국은 남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회개하면 우리는 새로운
판자를 갖게 되기 때문에
못자국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었으며 일생동안 늘 그런 느낌을 갖고 싶었다.

나는 그해의 주일학교를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그 해 여름에 나는 옛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 친구들은 내가 왜 그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나는 더 쉽게 화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8월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친구들과

모두와 관계를 끊어버렸다. 어떤 애들은 상관하지 않았으나 어떤 아이들은 나와 나의 새 종교에 적대감을 가졌다.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상했으며 이해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이해했으며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부터 복음을 꼭 잡고 바짝 매달렸다. 교회안에서 성장한 친구들처럼 복음에 대해 많이 알고자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교회의 많은 친구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되기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겐 그렇게 보여졌겠지만 나도 예전의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했다. 나는 교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세미나리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나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보상하기위해 완전하게 되고자 결심했다. (최소한 내게는) 회개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다. 4년동안이나 괴로워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적이며 경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으며 얼마나 훌륭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었으나, 나는 여전히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청산했으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지나간 잘못을 책망하고 계시며 내가 다시 잘못을 저지를 때를 기다린다고 느껴졌다.

마침내 절망과 혼란 속에서 나는 축복을 요청하게 되었다. 축복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파고들던 평온함을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성신의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으며 또

나로 인해 기뻐하고 계심을 알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었다.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이었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의 책을 읽을 때까지는 그 일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길고 어려운 길이란 책 속에서 홀랜드 장로님은 인생을 판자에 비유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판자에 못을 박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면 못은 빼내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그 못자국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홀랜드 장로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완전히 새로운 판자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전혀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만 그 못자국이 남아 있음을 깨닫고서 이 비유를 더욱 아름답게 느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교리와 성약 58 : 42 참조)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믿을 때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본질적인 요소다.

나는 아직도 왜 과거의 잘못들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는지를 모른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나는 그러한 경험이 주님의 자비와 용서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음을 깨닫고 있다. 확실히 나는 내가 저질렀던 잘못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는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감사드린다. 내 영혼에 거머리처럼 달라 붙어 있던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는 것은 그만 두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았다. 물론 나는 사랑을 갖기위해 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회개를 통해 얻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잊지 못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면 못자국도 없고 쪼개진 곳도 없는 갈보리 십자가로 만들어진 새로운 판자가 준비되어 있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는다. *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함 : “한사람 한사람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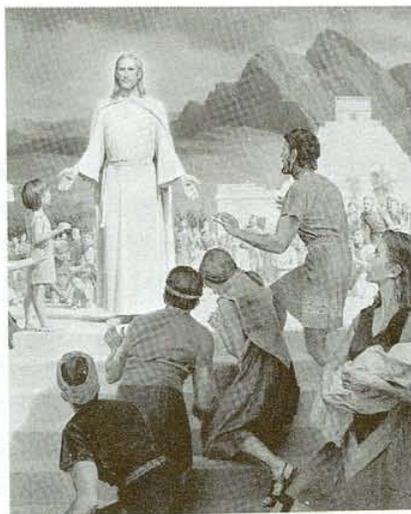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니파이인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무리가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 자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니파이삼서 11 : 14~15)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함

자매님들 각자가 “일어나 내게로 와서... 차례차례 한사람씩,”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키움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모두 같이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차례차례 한사람씩” 개인적으로 구세주를 알게되는 의로운 여성들로 인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확립한다는 것은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바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간증도 마찬가지로 간증을 확고히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인 공부하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확립되는 것입니다.

질문 :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시킴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개인의 행위

개인적으로 간증을 가지려면 각자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간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압 여인 룯은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 간증을 확립한 좋은 모범입니다. (룯기 1 : 16~17절을 읽는다)

질문 : 개인적인 간증이 어떻게 룯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개인적인 목표

상호부조회의 높은 목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목표를 높게 세우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과 소망과 자질을 고려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목표를 세워야 하며 또한 그 목표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욱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며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강하게 해 주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씩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 : 10~11)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즉시 니파이인들에게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니파이삼서 11장 15절)하도록 “한사람씩” 차례대로 자신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다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기회를 갖습니다. 간증은 우리의 생활에 영적인 뿌리를 내려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개인적인 의로움과 목표를 향하여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하는데 “한사람 한사람씩” 개별적으로 우리와 함께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 우리의 생활에서 영적인 뿌리가 어떻게 더욱 강한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나와 같은 어린이”

알 발 존슨

초등학교의 다 함께 나누는 시간에 어린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곳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코와 귀 한 쪽 그리고 눈꺼풀과 손가락들이 없다는 것만 다릅니다. 신체의 45퍼센트가 이식한 피부로 덮여 있고 왼쪽 다리에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뼈에 네 개의 핀을 박아 놓은 부목이 받쳐져 있었습니다.

여덟 살의 세이즈 볼크먼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동안 경험하는 것 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그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세이즈도 작지만 자신있는 목소리로 같이 부릅니다.

주님도 한 때 우리처럼...
어린이로 이 세상에 오셨네

.. 화 재 ..

1986년 10월 24일, 세이즈의 아버지인 마이클 볼크먼은 두 자녀를 데리고 야영을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6일 전에 마이클과 아내 테니스, 아들 아이버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섯 살 짜리 딸 세이즈는 자기도 같이 침례받을 수 없다는 것에 실망했지만 언젠가는 침례받을 나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마이클은 잠든 세이즈를 야영 트레일러에 남겨둔 채, 여덟 살 된 아이버리를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아침, 블루워터호수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유치원 교사였던 테니스가 대신 수업을 맡아 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함께 오지 못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하늘이 점점 밝아오자, 마이클은 세이즈를 보러 트레일러로 돌아왔습니다. 세이즈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호숫가에 있는

아이버리에게 되돌아간지 5분쯤 후에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버리가 고개를 돌렸을 때, 140미터쯤 떨어진 그들의 야영지 위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영지로 뛰어가는 마이클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트레일러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세이즈가 아직 침낭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문을 열어 쫓히자 연기와 불길이 마이클을 둘러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트레일러 안으로 뛰어 들어가 불길에 휩싸인 침낭을 집어 들었습니다. 세이즈는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얼굴과 손이 타는 것은 개의치도 않고 세이즈를 트레일러에서 꺼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세이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해서 세이즈의 가슴을 눌러대는 바람에 갈비뼈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마침내 마이클은 세이즈가 미세한 신음 소리를 내며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던 아이버리는 문득 트레일러 옆에 인화성이 강한 프로판 가스통이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내 내고는 소리쳤습니다. “아빠,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요!”

마이클은 그것을 깨닫고 고통을 참으며 세이즈를 트레일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몇 초 후에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생각조차도 복잡한 후속 조치들이 뒤따랐습니다. 근처에 있던 낚시꾼이 마이클과 두 자녀를 태우고 죽음과 싸움을 하며 거친 비포장 도로를 20분쯤 달린 뒤에 산림 감시 초소로 가서 무선으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앰블런스가 뉴 멕시코주의 그랜츠까지 실어다 준 다음 그곳에서부터 세이즈는 비행기로 뉴 멕시코 대학의 화상 치료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눈과 손을 붕대로 감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버리와 함께 앰블런스를 타고 110킬로미터를 달려 뉴 멕시코 앰버커크로 갔습니다.

무사함

세이즈가 처음 화상 치료소로 실려갔을 때, 의료진은 그 상태로는 그날밤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애가 살아날 확률이 10퍼센트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마이클은 말합니다. 세이즈는 얼굴과 팔, 가슴 및 다리에 3~4도의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코와 한쪽 귀는 녹아서 없어져버렸고, 손가락은 심하게 타서 절단해야 했습니다. 눈꺼풀도 35퍼센트 정도가 없어졌고, 폐도 한 쪽은 완전히 못쓰게 되었으며 다른 한 쪽도 거의 제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양 쪽 폐 안에서는 일리터 가량의 검댕이 나왔습니다.

세이즈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이즈는 계속 목숨이 붙어 있었으며, 이틀 후에는 총 여덟 번의 피부 이식 수술 가운데 그 첫 번째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이즈는 폐렴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열흘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울면서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마이클은 말합니다.

데니스는 유치원 수업 도중에 이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니스는 “부원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전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가 세이즈를 보았을 때, 누군가 제게 말해 주지 않았다면 전 제 딸애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마이클과 데니스는 그들의 딸을 보살피 주는 의료진의 기술과, 그들이 새로 들어간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세이즈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이내 알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금식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와드에서는 특별 금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이즈는 신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 축복은 로버트 더북 형제님이 해주셨습니다. 로버트 형제님과 아내인 루스는 볼크먼 가족을 교회에 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 남편은 세이즈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안에 있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그러한 축복을 믿으며 생활해 왔으며, 세이즈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몇달 후, 세이즈는 그러한 신앙의 힘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데니스가 세이즈에게 처음 6주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이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약간은 의심하면서 데니스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니?”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가 다쳐서 안됐다고 하셨어요. 또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이즈가 대답했습니다.

“넌 뭐라고 했니?”

“저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죠. 저는 그곳에 있고 싶다고 했지만 그분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곤 가셨어요.”

가정에서 제일 현실주의자였던 데니스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천사들은 날개가 있었니?”

세이즈가 말했습니다. “엄마! 천사들에겐 날개가 없는 것을 알잖아요!”

치 료

세이즈가 화상을 입은 지 2주 후에, 볼크만 가족은 화상을 입은 딸이 텍사스의 갤브스톤에 있는 특수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이즈는 11월 6일, 1,500킬로미터 떨어진 갤브스톤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 중에는 말일성도가 두명 있었습니다. 조나단 브러프와 랫 더런즈는 전에도 항상 환자를 봐 왔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환자의 신체 부위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었지만 세이즈의 경우는 달랐다.”라고 랫은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후에 그는 그 일기를 복사해서 볼크먼 가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세이즈가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세이즈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오늘 밤을 넘겨서 살아 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 큰 가정이며, 설사 살아나더라도 뇌 손상, 시력 손실, 만성 폐렴, 보족 장애, 그리고 어찌면 청각의 상실까지 생길지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보다 상태가 좋아진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라고 했다.

조나단은 그의 일기에 그 뒤에 일어난 일도 기록하였습니다. “랫과 나는 세이즈를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술복 차림으로 어린 소녀의 방으로 갔다. 우리가 침대로 다가갔을 때 반응도 없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형체를 보았다. 침대 옆에서는 인공 호흡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고 폐와 위에 공기를 주입하고 또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고무관들이 세이즈의 얼굴에 있는 구멍마다 연결되어 있었다. 어린 아이는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단지 조그만 두발만 이전의 예쁜 모습을 짐작케 해 줄 수 있는 뚜렷한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껏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해줄 기회를 바라고 있었다면 바로 이 경우가 그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아이가 직면하게 될 엄청난 시련뿐만 아니라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때까지 간호하기 위해 부모가 겪어야 할 희생을

상상해 보았다.

“랫이 그 어린 소녀의 연약한 살에 기름을 바른 다음 우리는 그 기름을 인봉하기 위해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때 처럼 성신이 나를 통해 아주 힘있게 말하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놀랍게도 나는 그 아이에게 부상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리라고 축복하였다.”

랫과 조나단 둘 다, 그들이 주었던 축복, 특히 완전히 회복되리라고 약속했던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랫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다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말했다. 축복이 끝난 후 나는 그 어린 소녀의 머리에 잠시동안 손가락을 얹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내 힘을 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떼자 나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세이즈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케양

끔찍한 부상에서 회복된 후 세이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가 다쳐서 안됐다고 하셨어요. 또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죠. 더 있고 싶다고 했지만 그분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출혈로 수술 계획이 연기되었으며 혼수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기부금 덕분에 루스 디벽이 갤브스톤까지 와서 데니스와 같이 있을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세이즈가 머물고 있는 꿈의 세상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세이즈의 발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찬송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세이즈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데니스가 딸의 일그러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사랑한다, 세이즈.”라고 말하자 세이즈가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저도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회 복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세이즈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이 몹시 고통스럽긴 했지만 천천히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다섯 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세이즈는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12월 23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이즈는 앨버커크의 회복 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피부가 치유되면서 오그라들자 이제는 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상한 피부를 벗겨내고, 새로 돌아난 살을 과산화 수소수로 깨끗이 닦아주는 세 시간 동안을 줄곧 욕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걸음을 배우는 데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세이즈는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으며, 자전거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세이즈에게 가장 고통스런 시련이라면 손가락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이즈는 손가락도 머리카락처럼 다시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이즈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애석하게도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이즈는 이 모든 상황에 훌륭히 적응해 갔습니다. 한달 전에는 앨버커크의 한 상점에서 세이즈에게 컴퓨터 한대를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작해서 그림을 그리고 게임도 즐길만큼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이즈를 처음보는 사람들과, 특히 어린이들은 세이즈를 무서워합니다. 외모는 변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친근한 어린 소녀에 대한 거부감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날, 세이즈가 바깥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어린 아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세이즈를 처음 본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야!” 그것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세이즈는 그 아이를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놀리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가게에 가는 우릴 사람들이 몰꾸러미 쳐다보기도 해요.”

와드 회원들은 세이즈가 가능한한 편안하게 깎브스톤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이즈가 돌아오기 직전 ‘다 함께 나누는 시간’에, 초등학교 회장은 비록 다치거나 불구가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회장인 낸시 앨드리즈 자매는 세이즈가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 테이프에서 세이즈는 자신의 경험과

장래 소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이즈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옛날의 세이즈”라고 강조하며 말을 끝맺었습니다.

낸시 자매는 어린이들 각자가 그들의 방식대로 세이즈에게 적응했다고 말합니다. 낸시의 아들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애는 세이즈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세이즈에게 사랑과 우정이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와드 지도자들과 세이즈를 2년 동안 가르킨 캐시 워런과 같은 교사들은 계속해서 세이즈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그들은 흉에 겨운 아이들이 깜빡이고 세이즈의 다리 부목에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세이즈를 안전한 곳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반 반지를 주는 때가 왔을 때는 세이즈의 반지에 특별히 고리를 달아서 목에 찰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목 적

성 경에는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다”(요한1서 4:18)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이즈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이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외의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세이즈는 우리들 누구나 이 생에서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 즉 순결, 관용,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굳은 독립심 같은 것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됩니다.

웹 감독님은 세이즈의 가족과 함께 지난해 십일조 결산을 했던 것에 대해 회상합니다. “제가 세이즈에게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나요?’라고 묻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십일조를 채우기 위해 널 십일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든 봉투를 꺼내 제 책상위에 놓았습니다.

“‘영수증을 대신 써줄까?’라고 묻자,

“‘아니오, 종이를 잡고 계시면 제가 쓸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잘려진 팔 끝 사이에 연필을 고정시키더니 갖은 애를 다 써서 영수증을 썼습니다.”

세이즈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마찬가지로 감독님도 세이즈가 얼마나 어렵게 회복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세이즈가 걷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테니스는 어떤 어린 소녀는 너무 울어서 부모님들이 치료를 하지 못하자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이즈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애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제 몸을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세이즈는 그같은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통해 세이즈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편지들이 왔습니다.”라고 마이클은 말합니다. 앞으로 죽어가는 한 여성에게서 온 편지도 한 통 있는데, 그녀는 잡지에서 세이즈의 사진을 오려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플 때, 그 사진을 보며 ‘이 바보같은 여자야. 뭐가 그리도 슬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편지에는 매우 감명을 받아 몇 년만에 다시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세이즈가 한 선교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세이즈는 훌륭한 선교사이기도 하거든요.”라고 마이클은 말합니다.

세이즈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처음 며칠동안 마이클과 테니스는 고통스럽게도 세이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예전에 알았던 세이즈를 잊고 새로운 세이즈를 받아 들어야 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딸 아이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이웃의 도움은 세이즈가 그 어려운 치료를 받은 데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루스 디빅 자매는 처음 며칠 밤 동안을 병원에서 테니스와 함께

지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침대를 붙여 놓고 머리를 마주 대고 손은 꼭 잡은 채 눕곤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세이즈가 불에 탄 그 끔찍한 악몽과 싸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세이즈가 만일 죽는다면 하는 가정을 하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 또한 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 대해서 느끼고 소망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으며, 테니스는 그 사실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옛날의 꿈을 날려 보내야 했으며 다음에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했습니다.”라고 루스 자매는 말합니다.

루스 자매는 그러한 꿈들이 꽃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이즈가 장차 언젠가는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육신을 통하여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친절하고 순결한 어떤 젊은이가 세이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이즈가 자녀들을 갖게 되고 복음대로 생활하며 주어진 기쁨을 즐기며 슬픔의 상처를 이기고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와드의 커크 우드 형제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괴로워 하다가 그러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볼크먼 가족은 주님께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모든 경험이 어렵고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아름답게 묘사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무엇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겸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운이 좋습니다. 복음이 있거든요.”

테니스는 가벼운 미소를 띄웁니다. 마이클을 보고, 아이버리와 세이즈를 바라보다가 간단히 말합니다. “복음이 병을 고쳐준답니다.”*

하지만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이즈를 처음 보는 사람들과, 특히 어린이들은 세이즈를 무서워합니다. 외모는 그대로운 친근한 어린 소녀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이 갈트

매 달 세째 주에는 와드의 많은 회원들이 우리 집에 함께 모여 특별 가정의 밤을 가졌다. 그 중 어느 하루는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었다.

우리 모임의 단골은 미망인이나 홀아비,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과 새로 이사온 사람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는 다과를 들며 재미있고 건전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 두 사람이 그들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자신의 생활에 관해서 말해주는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 모두는 어떤 나이 많은 형제님과 새로 개종한 그의 아내와 특별히 친해지고 싶어했으며 그들이 우리의 가정의 밤에 참석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언제나 교회 모임에 참석했지만 우리 모임에는 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모임에 오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로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모임 전 날 저녁에 그 형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해서는 “형제님, 오실 수 없게 되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가 이번에 왜 갈 수 없게 되었는지 들어보세요. 감독님이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해서 제가 재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분을 충실한 회원으로 여겨왔으므로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그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으며, 그 기간 동안이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자매님은 이 길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침례받고 싶지만, 침례식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정된 가정의 밤 때문에 우리가 그 침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섭섭했지만 침례식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쯤 감독님의 아내가 급하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가정의 밤 준비가 중단되었다. 감독님은 의사였는데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겨 병원으로 갔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와드의 선교 책임자도 업무가 있어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고 없었다. 침례받을 형제는 회원인 가족 몇 명과 함께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감독님의 아내가 스테이크 부장과 연락하고 있는 동안 나의 남편은 가정의 밤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분의 가족들 말고는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가서 그 형제님에게 아주 중요한 이 침례식을 축하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다. 우리는 재빨리 차를 몰고 교회로 가서 걱정하고 있던 스테이크 부장을 만났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방 안에는 영이 가득 임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형제님은 침례를 받은 후 침례탕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위해 베풀어준 따뜻한 격려와 사랑에 감동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저는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즈막히 말씀했다.

곧이어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못할 영적이고 아름다운 모임이 계속되었다. 침례식이 끝나자 우리는 이 새로운 침례자를 축하해주었으며 “형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분은 우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가정의 밤을 하면서 침례와 회개에 대한 간증과 복음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영적인 저녁 시간을 가졌다. *

케이 갈트는 캘리포니아 터록 스테이크, 허슨 와드에 참석하고 있다.



W. H. Smith

발터 스파트와 첫번째 남미 스테이크

네오자 롱고

발터 스파트가 브라질 상파울로시의 센트로 지부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1954년에 성도들이 지부 예산을 모으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다. 그 바자회에 출품된 물품 가운데에는 훌륭한 상품들과 아름다운 그림들 그리고 타일로 장식된 성구 인용문 액자들도 있었다. 어떤 회원들은 “기금 모금을 위하여 그렇게 비싸고 공들인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으나 후에 스파트 지부장이 그것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발터 스파트의 주요 여가 선용의 수단은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1989년 사망하기 전까지 그가 그린 유화만도 수백점에 이른다. 그러나 발터 스파트는 평생 동안 그 자신의 흥미나 야심보다는 가족과 교회의 필요 사항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 일차대전후 가족과 함께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로 이민 온 독일 젊은이 발터는 가구 디자이너와 숙련된 공예가로 성공하게 되었으며, 브라질의 초기 교회 개종자로서 열심히 봉사했으며, 마침내는 남미에 최초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에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발터는 1950년에 침례받은 직후부터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발터가 산타카타리나에 있는 가족 농장을 팔고서 그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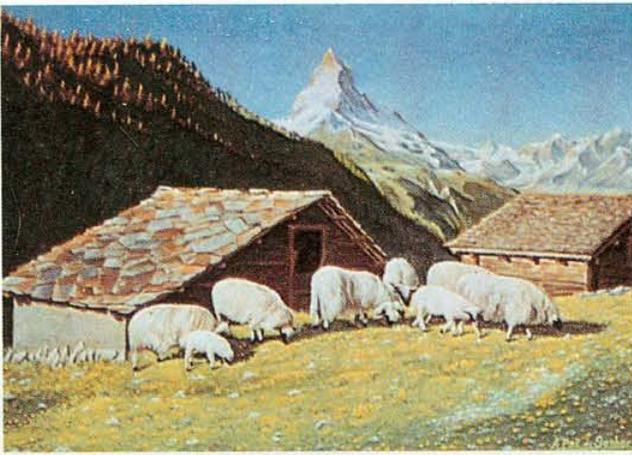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먼저 독일로 되돌아 갔으나, 이차대전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발터는 브라질에 머물게 되었으며 1946년에 스위스에서 이민온 에디트 알트만과 결혼했다. 그 후 발터 부부는 상파울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가정에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발터는 5개월 동안 선교사들과 공부하고 경전을 읽었으며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는 중에 차츰 이 교회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1950년 3월 20일에 침례받았다. 에디트는 같은 해 10월에 교회에 들어왔다. 엄격한 신교도로 성장한 그녀는 말일성도 생활의 어떤 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특별히 교회안에서 무도회를 갖는 것이 그러했다. “침례받고 몇년 동안 몰몬경을 읽은 후에야 이것이 진실로 주님의 교회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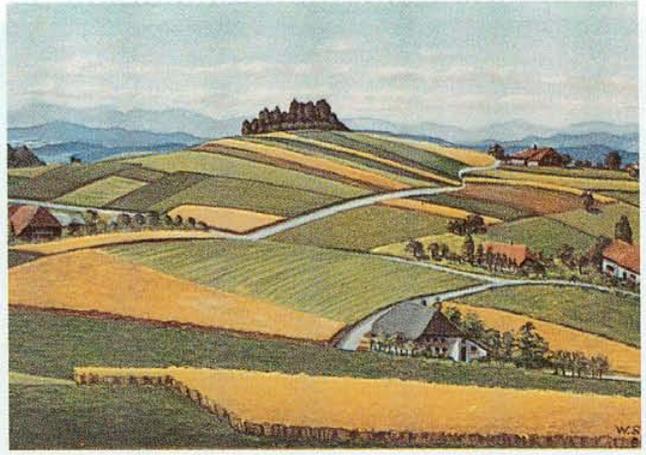
에디트는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녔으나 발터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참된 교회를 찾게 된다면 헌신적인 회원이 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주해온 젊은 발터와 에디트는 브라질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며, 가족이 모두 헌신적으로 복음생활을 했다.





• 발터 스파트 그림



발터가 일하러 가고 나면 에디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교회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했다. 5개월후인 1949년 11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발터는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만으로도 지치지 않고 헌신했다.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지부장으로 또한 브라질 선교부장의 보좌로 그리고 지역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의 친구이자 교회의 여러 직책을 맡아 함께 일했던 호세 람파르디는 그가 그 부름들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는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완전히 가깝게 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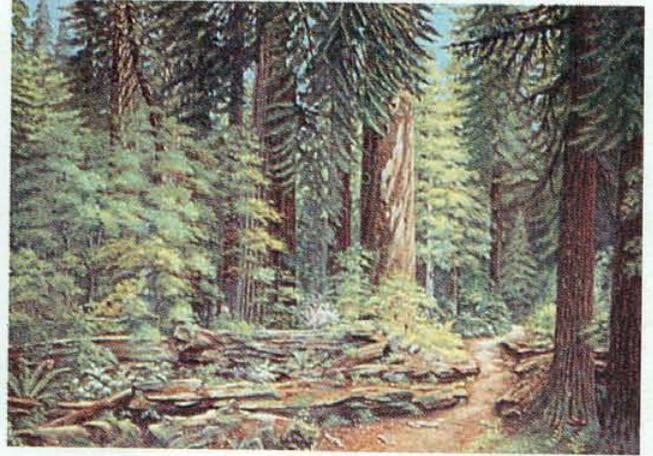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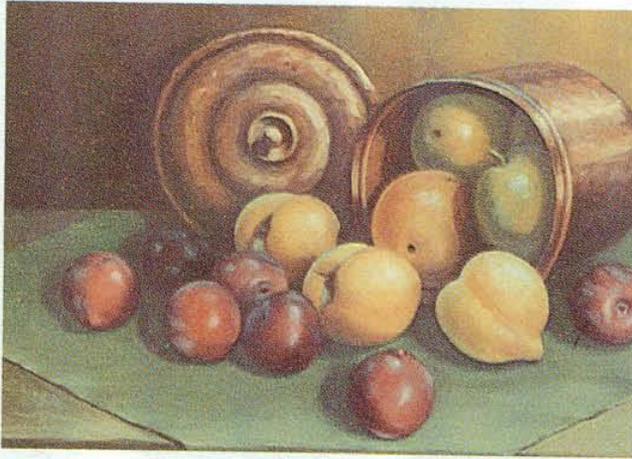
지도자로서 호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발터는 엄격했습니다. 그는 무척 딱딱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발터는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알고서는 자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주저없이 용서를 구했다. 호세는 발터와 함께 교회 부름을 수행하다가 서로 논쟁을 벌였던 사건을 회상한다. “저는 성찬을 듣기 위해 정시에 모임에 갔는데 그때의 그런 기분으로는 성찬을 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 어깨위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터였습니다. 저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좋은 기분으로 성찬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1966년 5월의 밝은 아침, 발터와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모든 말일성도들의 생애에 있어 특별한 일이 생겼다. 브라질 상파울로시에 최초로 스테이크가 세워졌던 것이다. 새로 세워진 스테이크내에는 일곱 개의 와드와 세 개의 지부가 속해 있었으며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께서 발터 스파트 형제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하는 행사를 주관하셨다.

이 스테이크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남미 최대의 도시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스파트 부장은 고등평의원들이 각 와드들을 돕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주리라고 믿었다. 선교부였던 그 지역에서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도자를 부르고 강화시킨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발터가 스테이크 부장이던 당시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마크 글로버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좀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스테이크 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일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대로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당시 발터에게는 아들 오즈벨도와 딸 글로리아가 있었으며 자신의 가구공장 일로도 무척 바빴다. 글로리아는 아버지가 보통 오전 6시 이전에 일하러 가셨다고 회상한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아버지셨어요. 우리는 종종 아버지가 쉬도록 휴가를 갖게 해 드리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일을 쉬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휴식 수단은 예술이었는데 은퇴할 때까지는 예술을 위한 시간 조차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발터는 가족들에게 언젠가 성전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는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꿈은 그가 10년 반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나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상파울로 성전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그는 성전 개장과 헌납을 위한 집행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몸소 성전에 둘 정교한 가구들을 디자인했다. 후에 그는 지역 대표로 봉사한 후 성전장의 보좌로 부름받았다.

1984년 그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수년동안 많은 시간을 유화에 전념했다. 오즈벨도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자연을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교회 부름을 수행하듯 완전함을 추구하며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술에 전념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300점의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발터와 에디트는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암으로 인해 몹시 고통을 받았으며 생애에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다.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해 보았다. 글로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는 당신께서 많은 성취를 하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균형있게 쓸 수도 있으셨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생의 시련을 통해 말년에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터 스파트는 1989년 5월 15일에 세상을 떠났다.

상파울로 시에는 현재 두 개의 선교부와 14개의 스테이크 그리고 약 47,000명의 회원들이 있다. 많은 브라질 회원들이 교회가 그들 나라에 막 세워졌던 “초기”를 회상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발터 스타트가 브라질 교회의 개척자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네오자 롱고는 브라질 산토 안드라 스테이크의 산토 안드라 제1와드에 살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로의 교회 번역부장인 플라비아 엘브라도 형제가 이 기사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었다.



왼쪽 : 1962년 이래 브룩클린에 사는 곤잘로 아이어디스 형제 부부는 자녀들이 조상의 문화 유산을 잊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아이어디스 형제는 현재 브룩클린 제2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아래 : 브룩클린 제1와드의 회원인 시릴 로버츠와 리자 모건

브룩클린을 통해 본 세상



글렌 벨슨

브룩클린에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마치 근처에 있는 국제 연합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기분이다. 그곳에는 두 개의 와드와 한 개의 지부가 있는데 언어상으로 보면 각각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브룩클린의 회원들은 이보다 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브룩클린 제1와드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발바도스, 엘 살바도르, 영국, 이디오피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하티티,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푸에토리코, 스위스, 그리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을 포함하여 40개 국가로부터 온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온 회원들만 해도 말 그대로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까지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 브룩클린 토박이조차도 유대인이나 이태리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등 민족적으로 다양함을 보여준다.

브룩클린 교회의 역사는 그 도시의 역사와 때를 같이한다. 뉴욕시를 구성하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미국내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이며, 세계의 교차로 중 하나로서도 전설적인 위치를 정하고 있다. 최근 1940년도 까지만 해도 미국인 네명 가운데 세명은 그들의 조상들이 브룩클린에서 살았거나 그곳을 거쳐왔던 것을 추적할 수 있었다.

1837년초 브룩클린에 교회 지부가 세워졌으며 1840년과 1890년 사이에 5만 명의 유럽인 개종자들이 교회에 의해 그룹으로 조직되어 이곳에 도착했다. 그 후 수천명도 더 되는 말일성도들이 뉴욕으로의 항해를 계속해왔다. 브룩클린은 오랫동안 교회 이민들을 위한 주요 입항지였다.

그러나 브룩클린은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자들의 정착장의 역할을 해 왔다.

1846년에 교회는 서부로 이주를 시작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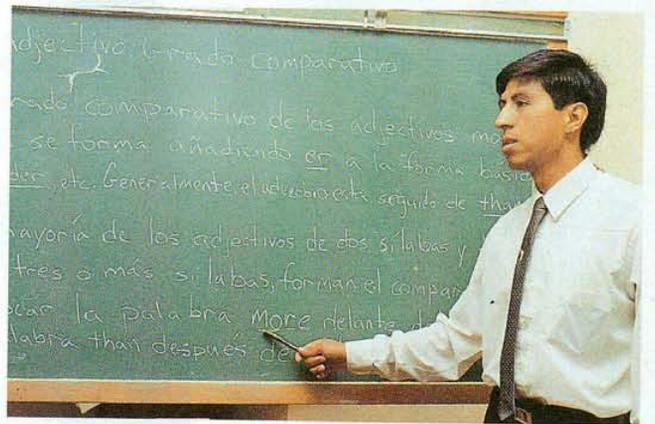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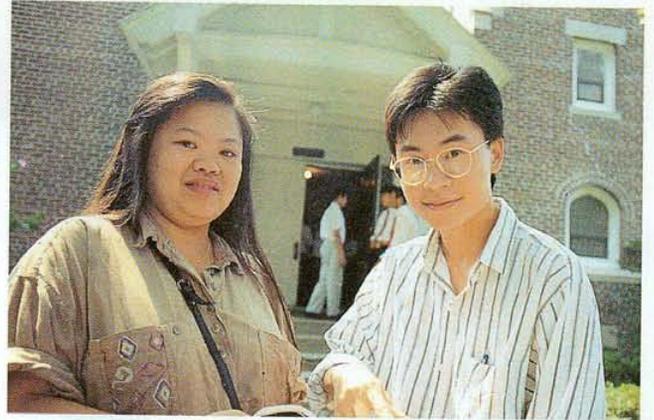




왼쪽 : 브룩클린 제1와드의 페트루스 가족은 브룩클린으로 이사온 뒤로 “항상 영에 의존하는 것”을 배웠다.
왼쪽으로부터 라켈, 그레고리, 사라, 마이크와 그들의 어머니 미레이.

아래 위 : 뉴욕 스테이크에는 엘리스 추리는 방문자와 우정 증진을 하고있는 토마스 코와 같은 중국 지부 회원들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들이 속해 있다.

아래 밑 : 브룩클린 제2와드의 청남회장단 제1보좌인 보니파시오 가니스 리오스.



캘리포니아로 회원들을 옮기기 위한 배를 빌렸는데 그 배의 이름이 ‘브룩클린’이었다.

50년전만해도 유럽에서 온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브룩클린 와드가 지금은 적도 부근에서 온 회원들의 비중이 더 높게 바뀌어졌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왔건 미국내의 다른 주에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이다. 브룩클린 지부의 약 1200명의 회원들 가운데 브룩클린 토박이는 거의 없다.

미레이-페트루스와 그녀의 가족들은 브룩클린 말일성도들의 충실함과 다양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8년전에 하이티를 떠나 미국으로 왔는데 낯선 사회에 정착하는데는 교회의 도움이 많았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영성을 지니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미레이의 첫째 자녀인 라켈의 말이다. 페트루스 자매는 와드내에서 불어를 쓰는 다른 하이티인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브룩클린 제1와드의 랜디 도우는 어려해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일했지만 브룩클린에서 “전에 경해해 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어려운”일을 경험한다.

범죄와 가난으로 유명한 이웃들 사이에서 4명의 십대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자녀들을 잘 준비시켰으며, 자녀들은 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두렵고도 위험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기위해 영에 의존해야만 합니다.”라고 라켈은 말한다.

신앙이 강한 가족들과 활발한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브룩클린에서 열성적이고 자발적인 젊은이들을 키워냈다. 그러나 어려해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일해온 메인주 출신의 랜디 도우는 이렇게 말한다. “몇년전 우리는 단 두 명의 학생으로 세미나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부모들이 자녀가 밤늦게 밖에 있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브룩클린에서는 자가용이 귀했지만 교통 수단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므로, 따라서 청소년들은 매주 수업이 끝난 후 활동 모임을 가졌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모두 원하기 때문에 세미나리가 금요일 밤에 열린다.

도우형제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번은 어떤 반원이 학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들려주면서 세미나리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십대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무척 기뻐한다.

브룩클린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자 고향인 혼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정 반대라고 대답했다. 곤잘로 아이어디스형제 부부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가 더 쉬워요. 최소한 늘 일자리는 가질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1962년에 다섯 자녀를 데리고 브룩클린으로 이주해 왔는데 지금은 두명이 더해졌다. 41세의 아이어디스형제는 목수로 일하고 있다. 브룩클린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7년후 그들은 자신의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현재 애리조나 선교부에서

최근에 귀환한 막내딸만 제외하고 자녀들 모두가 결혼했다.

이 부부는 아직도 스페인어를 일상 언어로 쓰고 있으며, 자녀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가 여기로 이사왔을 때엔 두 나라 말을 쓰는 학교도 없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와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집에서는 스페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이 스페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이어디스 자매의 말이다.

아이어디스 형제는 현재 브룩클린 제2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모임은 스페인어로 진행된다. 그는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으러 가족들을 판사에게 데려가던 때를 회상한다. “아이들은 마치 천사처럼 우리가 앉은 긴 의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 판사는 뉴욕이 아이들을 타락시킬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들에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오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지요!” 아이어디스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가구와 집과 옷들을 조국에 두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갖고 왔습니다.”

브룩클린에 있는 와드 지부들은 전세계의 모든 와드 지부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와드 지부이다. 여행자나 새로운 회원들은 이곳 와드 지부 회원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인종들에 매력을 느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브룩클린 회원들은 그런 차이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같다. 대신에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이나 브룩클린으로 오게 된 사연이나 단합된 가족 생활과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등과 같은 유사성에 더 마음을 둔다.*

전 브룩클린 거주자였던 글렌 벨슨은 현재 뉴욕 스테이크 맨하탄에 살며 아내와 함께 농아 회원들을 돌보고 있다.*



새소리와 제비꽃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우리 가족이 살았던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던 어린 나에게조차도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지역의 남자들은 대부분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의 술집에서 놀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 주된 일과였다.

광부들은 직업상으로도 그러했지만 빈곤한 살림 탓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일요일에 예배를 보러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구두를 닦아 신었지만 다른 날은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으며, 중키에 넓은 가슴을 가진 건장한 분이였다. 또한 검은 머리를 언제나 잘 빗고 다니셨으며, 콧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어 용모를 돋보이게 하셨다. 그밖에도 아버지는 늘 양복점에서 맞춘 옷을 입고 계셨으므로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마을로 가는 일은 거의 없으셨다. 구두도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아 신으셨고 양복가에는 정원에서 꺾은 꽃을 꽂고 계셨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동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이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으며, 친절하게 대하셨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부유한 집의 큰 정원에서 여러해 동안 정원사로 일하셨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셨던 집의 주인은 아주 훌륭한 포도밭을 갖고 있었으나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포도넝쿨이 제멋대로 자랐으며 포도의 질도 형편이 없었다. 고용주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 넝쿨을 돌보고 다시 예전처럼 훌륭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숙련된 정원사였던 아버지는 벌레먹은 꺾은 가지들을 밑둥까지 잘라 내셨다. 그러자 포도 재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주인은 그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아버지를 해고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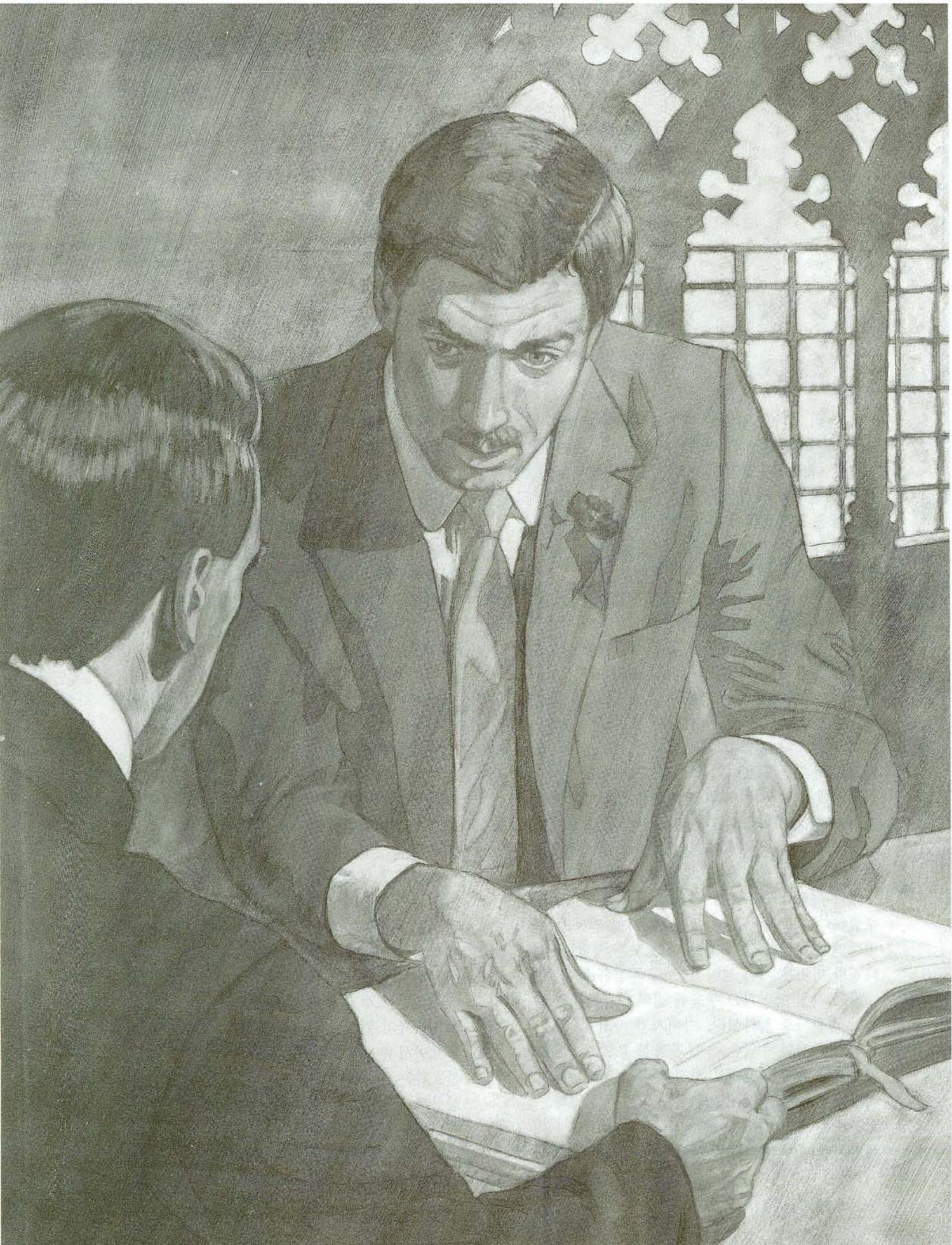
그래서 아버지는 정원사일을 그만두고 탄광촌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철로 수리반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일년쯤 지났을 때 회사측에서 아버지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감독으로 임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집 정원을 부러워 했다. 우리 정원에는 잡초하나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채소들은 마치 키작은 병정들처럼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세탁하고 난 비눗물을 모아두라고 하셨는데, 나중에야 나는 비누속의 알칼리성분이 살충 작용을 하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다. 그래서 술집에 드나드는 대신 자주 가족과 함께 아코디언을 켜시면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셨으며, 우리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가 교회로 개종한 후부터는 일요일 아침이면 항상 특별한 시간이었다. 주일학교를 마치고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우리들을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자연과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있을 당시에 지어졌던 오래된 돌벽 옆에 멈춰서서 아버지로부터 로마제국의 위대함에 대해 들었다. 아버지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로마의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그들의 숨씨를 자랑하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또 한때 위대했던 그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자연 학습에도 흥미를 느끼도록 해



주셨다. 한번은 아버지가 울타리 아래에서 제비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 우리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단지 아주 작은 꽃에 불과하단다. 그러면서도 이 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시켰지. 사랑스런 향기와 아주 좋은 벨벳보다 더 부드러운 꽃잎과 같은 이 모든 것은 토양에 있는 양분과 햇빛을 통해 생명을 취한다.”

언젠가는 산책하다가 내가 고슴도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 고슴도치는 관목 덩굴 아래에 숨어서 작은 구슬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보고 있었다. 나는 그놈을 막대기로 찌르려 했지만 아버지가 말리셨다. “왜 그 작은 생물을 괴롭히니? 개와 여우들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움을 겪을텐데.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한번은 아버지가 멈추어 서시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하셨다. 그리고는 하늘의 한 검은 점을 가리키셨다. “자,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우리는 멈추어서 하늘높이 나는 새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그말 뜻을 알게 되었다.

어느 비오는 저녁, 가족들이 불결에 둘러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내게 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빠” 어린 나로서는 좀 대담하게 말했다. “우리에게 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친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얼마 동안 불을 보고계시니 대답하셨다. “토마스,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몇년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후에 얼마 안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 그분의 무덤에도 가본 적이 없단다. 언젠가는 꼭 가 볼 생각이야.” 얼마 후 아버지는 시골에 가 볼 날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의 작은 시골집에 사는 친척이 있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며칠 후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으고서 아버지가 알아내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는 란반젤이라는 마을의 오래된 교회를 찾아가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출생기록을 발견했다. 다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다.

어느 계곡 윗쪽의 작은 탄광촌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아기에게 론원이란 이름을 지어 주셨다. 그 여자 아이는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어느 부잣집의 하녀로 들어갔으나, 일년이 채 못되어 임신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 부잣집 주인이 소녀의 순진성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소녀가 임신한 것을 알자 두달분의 급료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론원은 아기를 낳기 전에 마을의 젊은이와 결혼했으며, 그 아기에게 세례명과 출생기록을 만들어 주지 못했으므로 결혼한 남편의 성을 따라 키웠다. 그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후 광산 사고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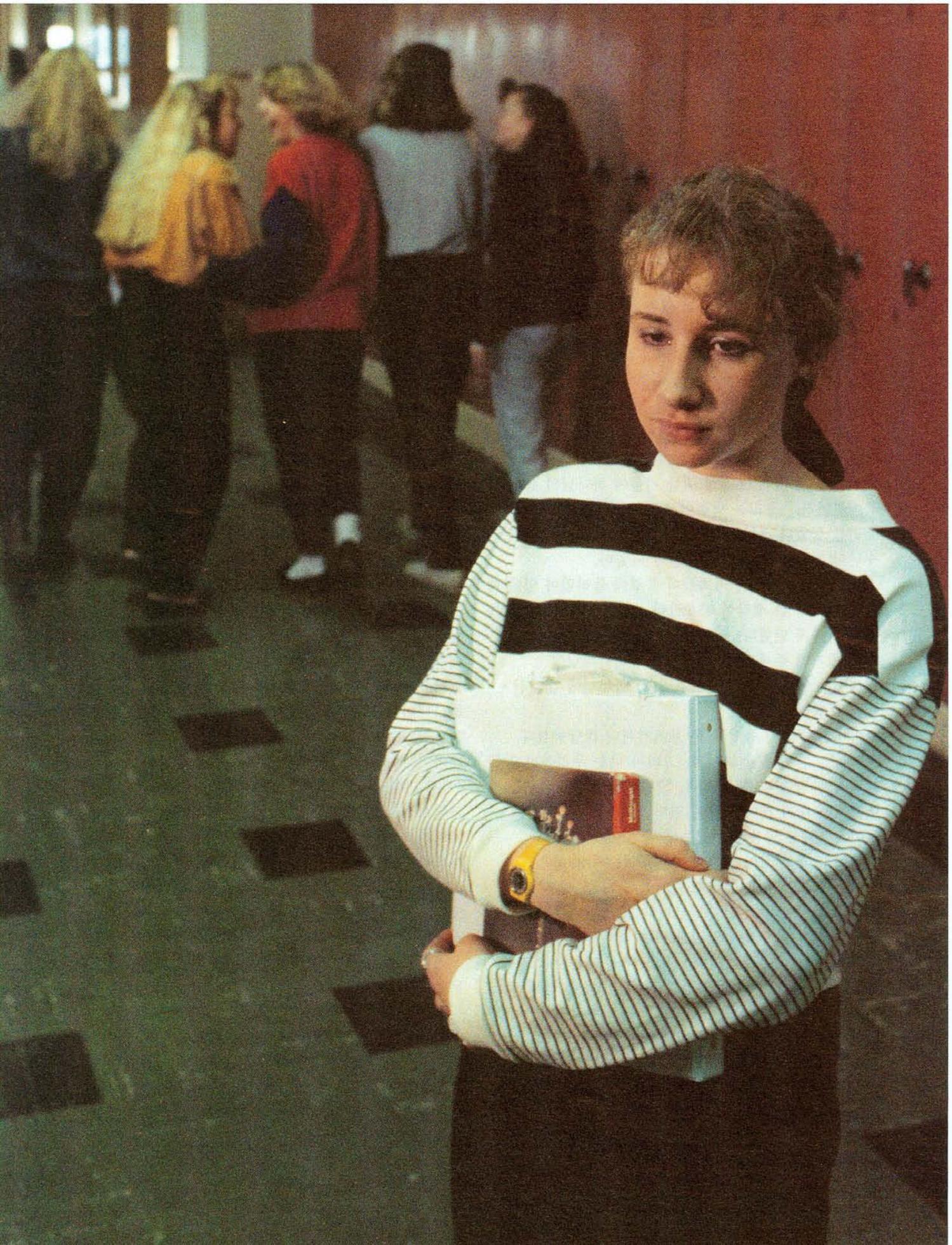
그 교회의 목사가 이러한 상황을 후에 기록해 두었던 것인데 자신의 출생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셨다. 정원을 가꾸는 일이나 심지어는 외모를 가다듬는 일에도 흥미를 잃으셨으며 행복하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침울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천사같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도록 하셨다. 어머니가 늘 지니셨던 상냥함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매우 화가나신 모습으로 “윌리엄”하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당신은 바보처럼 굴고 있군요. 어떤 나쁜 사람이 한 어린 소녀를 유혹하고 아기를 낳게 한 것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저주하고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있어요. 당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는 당신이 사랑할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화가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더이상 당신이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목을 안고서 사랑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윌리엄.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당신에겐 저와 아이들이 있고 또 가족간의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당신에겐 신권이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고뇌가 눈물로 승화되며 아픔을 씻어내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흘러 나왔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했던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셨다. 우리들은 다시 언덕위로 산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또 다시 정원과 꽃들을 돌보셨다.*



내 친구

패트리샤 알 로퍼

예전의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 모두가 나를 저버렸다.
나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한 친구를 깨닫던 그 날까지 아주
마음이 상해 있었다.

중 학교 일학년 시절에 겪었던 한 경험으로 인해 나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그 경험은 특별한 친구로 인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중 하나로 바뀌어졌다.

그 해에 내 또래 소녀들은 여러가지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서로 다른 그룹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그룹’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녀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으며, 내 친구들은 모두 그 그룹에 속해 있었고 나도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어느날 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녀 중 하나인 바니가 내게 와서 내가 그 그룹에서 제명당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왜?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린 단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라고 바니가 말했다.

그 때에 나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나는 만약 그 그룹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든다면 그애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친구의 이름은 비키였다. 나는 그룹의 친구들이 그애를 주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키를 선택했다. 비키는 키가 아주 작았고 말랐으며 솔직히 말해서 예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키는 멋진 친구가 되었다.

비키와 나는 서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우린 둘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비키와 함께 있을 때면 기분이 무척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비키가 있는 한 그 그룹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소녀

비키와 내가 친구가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였다. 우리는 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소다수와 사탕을 나눠먹으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사탕을 찢 종이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나를 바라보는 비키의 눈에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하였다.

“뭐가 잘못됐니?” 내가 물었다.

비키는 대답하기 위해 한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난 이전엔 좋은 친구가 전혀 없었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영원히 좋은 친구로 있자고 약속할 수 있겠니?”

“물론이지.” 나는 크게 감동하여 대답했다. 사탕 종이를 집어 들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얼마 후 그 그룹이 비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비키, “이리와, 우리랑 함께 먹으러 가자” 혹은 “비키, 왜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니?”하는 식으로 비키에게 접근하였다.

비키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매력적인 초대에 저항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도 그날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도 학교에 가서는 보통 때처럼 비키의 사물함쪽으로 곧장 갔다. 홀 아랫쪽에서 나는 그 그룹이 비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웃음 소리는 더욱 커지고 더욱 유쾌한 듯 커졌다. 예전에 친구였던 두 소녀가 나를 슬쩍 쳐다보고선 고개를 돌리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비키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쏙 빠져있었다. 나는 그것때문에 그녀를 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우리의 약속을 잊어 버린 것 같았다.

그 소녀들은 곧 이어 가운데 있던 비키와 팔짱을 끼고 즐겁게 줄지어 홀을 내려갔다. 그들은 마치 내가 거기에 없는 듯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갔다.

그때 나는 정말 당황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경험중의 하나인 그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나는 내가 그 그룹이 결코 데려갈 수 없으며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어느 때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며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을 친구를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나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파스한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그 속에 완전히 빨려 들어갈 때까지 계속 커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을 깨달았다. 나는 소리치며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했다. 나의 마음은 새롭고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 일이 있는 후 얼마 안되어 바니가 내게 다가왔다. “어떻게 지내니?” 그녀는 거북한 듯 물었다. “좋아” 나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애쓰는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린 궁금해” 바니가 말을 시작했다. “우린 네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을거라고 생각했어. 우린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이 아직도 널 좋아해.”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어” 그들이 다시 나를 원하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 내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대로 내가 돌려 드리기를 원하는 진실된 친구를 발견했다. 나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서 친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 *

